

**시 권자현**

### 보름달

잔잔한  
은하의 강변에  
진줏빛 사랑 수놓아  
눈부신 길 열리누나

우주의 꿈나라  
바람 따라 별빛 따라  
구름 계곡 구비구비  
만삭된 그리움 노 저어

허허로운  
창백한 가슴  
차곡차곡 쌓인  
상념의 창가 살며시

스멀스멀  
안기는 고운 입맞춤  
꿈길인 양 영혼의 환희  
휘영청 밝아오누나!



**약력**

- ▲문학공간(사부문)신인 문학상
- ▲대한민국 우수 작가상, 광주시인협회 올해의 작품상
- ▲예술 교육 문화상, 영호남 문학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역임
-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역임
- ▲시집 : '사색은 강물 따라' 외 4권



**시 전숙**

### 상사화

언제나 그대보다  
한걸음 먼저 길을 나선다

그대가 꽃문에 들어설 때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두기 위해  
개울을 건널 때  
그대의 발이 젖지 않도록  
징검돌을 놓기 위해  
그대가 가지개를 켤 때  
배고프지 않도록  
낙엽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록 불꽃없는  
풀잎으로 스러지더라도  
그대의 향기를 짓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모든 만남은 거룩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움이 거룩할 때도 있나니.



**약력**

- ▲'시와 사람' 신인상
- ▲나주예술문화 대상, 전국계간지 우수작품상
- ▲백호임제문학상, 한국Pen 문학상
- ▲'한국가사문학대상' 우수상, 고은최치원문학상 대상
- ▲광주문학상
- ▲시집 : '나이트 호미' 외 4권 상재



**시 조규철**

### 가을이 오면

늘 푸른 무등산 추억 살아비상하는 계절  
갈대꽃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춤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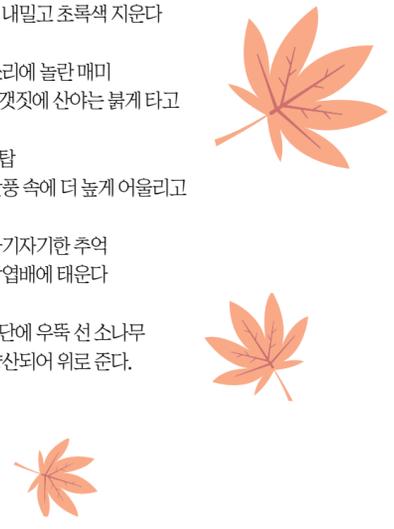
이파리 사이 사이 바람 타고 짙은 향기 피어나면  
꽃들이 얼굴 내밀고 초록색 지운다

삼봉 문화 소리에 놀란 매미  
퍼덕이는 날갯짓에 산야는 붉게 타고

중봉에 방송탑  
질게 물든 단풍 속에 더 높게 어울리고

깊은 계곡 아기가 자기만 추억  
가져 잡아 낙엽배에 태운다

세인봉 돌계단에 우뚝 선 소나무  
여름 내내 양산되어 위로 준다.



**약력**

- ▲'공간문학' 등단
- ▲시집 : '사랑의 전설 안고 피어나라'
- ▲수상 : 경북공창작대전 시 대상수상 외 다수
- ▲광주 북구청 경제문화국장으로 정년퇴임



**수필 주현진**

### 사랑에 눈뜨면 행복이 보인다

요즘 백 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처럼 배꼽 잡고 웃으면서도 "맛아 맞아" 하며 무릎을 친 사람들 많았을 것이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 칠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 팔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놀랍지 않은가? 코앞에 닥친 "백세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수 없으면, 혹은 우주인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백살까지 산다는 게 우스개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인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고 해마다 1-2년씩 늘어간다니 그야말로 백 세 인생이 남 얘기가 아니다.

나도 해방둥이로 육십 대의 마지막 해, 평균으로만 쳐도 아직 수십 년이 남았다. 과연 난 80살이 넘어서도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년이 60세로 되었다지만 주위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다. 어느 모임이거나 만나면 가장 뜨거운 주제는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다. 대부분은 여행이나 봉사, 종교, 취미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들 한다. 그래야 시간이 잘 갈 거라고 한다. 사람은 회로에력이 다 비슷하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또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평생 웃어야 할 웃음의 크기와 울려야 할 눈물의 양이 다 비슷하다. 가졌다 해서 더 많이 웃는 것도 아니며 못 가졌다 해서 그보다 덜 웃는 것도 아니다. 없는 자는 불어땀 한 방지로

도 똑같이 실패를 하고 똑같이 아예 걸리며 똑같이 사고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찾아들게 된다. 아니, 믿기 때문에 세상사에서 불편한 일을 더 많이 겪게 된다. 그럼 왜 배우려고 하고 왜 가지려고 하며 또 왜 믿으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근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고, 가지고, 믿어도 세상을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고달픈 뿐이다. 사람의 근본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는 본래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기에 자기 안에서 그 사랑만 찾으면 그가 걷는 삶의 여정에 보물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사랑을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눈물 안에 담긴 기쁨이나 고통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 보물이 많으며 또한 가짜로 보이는 진짜 보물도 많이 있다. 그런데 진짜는 항상 후미진 곳에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으며, 가짜는 또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빛깔이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포장지(?)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이나 눈물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진짜 보물이 거기에 있고, 재물이나 웃음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은 가짜가 항상 그곳을 아지트로 삼기 때문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의 눈만 뜨면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은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약력**

- ▲대한문학 수필, 동산문학 시 등단
- ▲대한문학 작가회 부회장
- ▲광주시인협회, 광주문인협회 이사
- ▲광주수필문학, 영호남문학회 부회장
- ▲수필집 : '기다리는 마음'
- ▲시집 : '황혼'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